Entertainment p/18

강하늘, 윤동주 시인된다

메트로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Sports p/21

프로야구 계절이 돌아왔다

뻔뻔플레이 홈플러스

"회원정보 팔아먹긴 했는데… 자료없다, 기억 안난다"

도성환 사장 등 기소 상태… 조직적 증거 은폐 의혹

사건 관련 공동기자회견

홈플러스

쌍용건설 다시 난다 법정관리 졸업 성공

톱크루즈 스포츠카 'BMW i8' 출시… 국내 첫 PHEV

황사·초미세먼지 주의보 서울시, 6개국어로 알린다

서울시는 4월부터 황사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외국인 유치원과 학교 22곳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1만 2000명과 교사에게 이를 전파하고 행동요령을 알린다.

현재 시는 황사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서울시내 내국인학교 2210곳에 대해 발령 내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를 외국인학교로 확대해 주의보가 발령되면 교사 약 70명에게 발령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알리고 단계별 상황에 맞춰 학생의 실외학습 자제 또는 금지, 수업단축, 휴교까지 권고하게 된다.

또 대기오염 경보에 대한 발령 기준과 행동요령을 영어, 중국어, 불어, 독어, 일어, 몽골어로 번역해 배부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주의보 전파 대상 확대는 그동안 소홀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취약계층 전파대상을 확대해 건강보호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Propagating Yellow Dust and Fine Dust Warning in 6 Different Languages

When yellow dust or fine dust warning is issued, Seoul will notice and inform behavioral know-how to 12,000 foreign students and teachers in 22 foreign schools and kindergartens. Currently, Seoul is informing 2210 Korean schools about how to take actions when the warning is issued. Seoul is expanding the informing service to foreign schools and notice 70 teachers through text messages and have the students stay inside, go home early or even stay home. Also, the conditions of issuing warnings and behavioral know-how will be translated and distributed into English, Chinese, French, German, Japanese and Mongolian. Kang Hee Eun, the section chief of Air Management, sta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warning notice is to give more care and ensure the health of foreigners. She also added that Seoul will put in more effort to look after the health of foreigners in need by expanding the warning notice to other areas as well.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온통 황사로 뒤덮힌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발 중동전쟁' 벌어지나

사우디 등 군사작전 개시 · 이란과 대리전 양상

예멘이 새로운 중동의 '화약고'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아파 반군인 후티가 예멘 전체를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걸프 국가가 공습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사우디 정부가 소유한 알아라비아 방송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전격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작전에 전투기 100대를 동원했고 지상군 15만명도 파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등 아랍국가 예멘 반군에 전격 군사작전

예멘 공습에 동참한 국가는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수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이다. 이집트, 파키스탄, 요르단, 수단도 지상군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 등 걸프지역 국가도 성명을 내고 "후티의 공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켜달라는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걸프지역 수니파 왕정을 중심으로 후티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 개입에 나섬에 따라 예멘 사태가 중동 전체의 싸움으로 확산할 공산은 더욱 커졌다.

특히 후티의 배후로 사우디의 숙적인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지목되면서 예멘에서 사우디와 이란 간의 대리전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국명 기자

'안전한 요르단으로 관광오세요' 25일(현지시간) 라니아 요르단 왕비가 요르단을 방문한 국제 언론인, 그룹과 소셜미디어 대표들을 맞아 요르단 관광홍보에 적극 나섰다. 라니아 왕비는 요르단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강점과 함께 안전 요르단을 강조하며 외부에서 느끼는 불안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요르단 왕실 제공

다시 찾아 온 '토네이도'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와 아칸소주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한 25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털사 시내에서 한 남성이 심한 비바람 속에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뛰어 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종실 문을 왜 닫았을까

사고 당시 조종사 한명 이탈 · 사건 미궁 속으로

독일 저가항공 저먼윙스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조종사 2명 가운데 한 명이 조종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기체 결함, 시스템 고장, 조종사 과실 등 추측만 난무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사고 조사에 참여 중인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두 명의 조종사 중 한 명은 사고 발생 직전 조종실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기 음성녹음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한 조종사가 바깥에서 가볍게 노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어서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며 "이어 이 조종사가 문을 거의 부수려고 드는 소리가 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종사가 조종실 밖으로 나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다른 프랑스 고위 관계자는 8분가량 급하강하는 동안 조종사들이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은 점이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CVR 복구 불가능할지도

AFP통신은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고 조사가 미궁에 빠지는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2개의 블랙박스 중 손상된 채 발견된 CVR의 복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장-폴 트로아덱 BEA 전 조사책임자는 이에 대해 "CVR의 핵심부품인 메모리카드는 잘 보호돼 있기 때문에 손상이 있어도 사용불능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의 자살 시도와 제3의 인물의 조종실 침입 등 제기되는 다른 가능성도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나와야 사실 규명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EA는 현재 확보된 블랙박스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한 사실은 밝혔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내놓지 않고 있다.

CVR에는 조종실 대화 및 교신 내용은 물론 출입문 개폐음과 스위치 조작음, 화재 경보음까지 기록돼 추락 원인 규명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FP통신은 이밖에 BEA 발표와 잔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기가 폭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정황이 나타나지만 추락 전 폭발이 있었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이 기자

직계가족 뺀 공직자 재산공개 유명무실

이완구 등 국회의원 37% 거부… 공직자 윤리법 조항 '구멍'

1993년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라는 가치를 내걸고 30년 넘게 지속된 군사정권의 그림자를 없애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한 일이 시작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잇따랐고, 부도덕한 축재로 옷을 벗는 장관·차관·검사·판사·청와대 비서관·국회의원들이 속출했다. "돈과 명예는 함께 갖지 말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 시절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제도화됐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 정부·지자체 26.9% 국회 37.6%

25일 발표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825명 중 26.9%인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전체 292명 중 37.6%인 110명이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고지거부 조항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구멍'이다. 직계가족의 사적 정보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지거부 조항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지난해부터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공개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은 27.6%였다. 2011년 26.0%, 2012년 26.6%과 비교했을 때 갈수록 거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더욱 높아졌을 공산이 컸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3년 거부율은 39.6%였고, 2012년 36.1%, 2011년 31.1%였다.

◆ 소득세 탈루 논란 이완구 차남 재산공개 거부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는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완구 국무총리 차남의 재산공개 거부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올해 취임한 이 총리는 이번 재산공개에서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차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기타 이유로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은 공개거부 의원 110명 중 이 총리를 포함해 4명이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장녀와 차녀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모친에 대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다른 의원들은 독립생계유지나 타인부양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빠진 이 총리 차남의 재산은 경기도 분당 땅 20억원(공시지가 기준), 예금 1300만원, 대출 5500만원이다. 지난 2월 11일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이 총리는 차남의 소득세 탈루 등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총리 차남이 외국 로펌에 근무하면서 2011~2012년도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추정한 이 총리 차남의 소득세 탈루액은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총리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4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한 26일 오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재산공개 내역이 담긴 국회 공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강남 집 구매 공개…직계가족 재산도 공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적 감시 여론을 의식한 듯 직계가족들의 재산까지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경기 안양시 단독주택(1억6200만원)과 서울 구로3동 단독주택(2억4600만원), 모친과 두 딸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정 비서관은 본인과 모친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모친과 자녀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반면 안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모친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안 비서관의 재산은 3인방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인방은 모두 지난해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서울종기자 kjkj@metroseoul.co.kr

이 총리 "자원외교 문제, 솔직하게 가자" 이완구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 놓고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하게 가자.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난다"며 "부탁하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부터 감사원은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美 국방수뇌부 잇단 방한… 사드 논란 가열되나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에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여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은 "이번 휘참의장 회담에서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뎀프시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현번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방한한다. 지난달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는 미측의 공식 협의 요청이 오기 전까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

"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

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패와의 전쟁 역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 등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인 196건이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였다. 무혐의나 내사종결이 37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합친 것이 34건 등으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중에는 법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도 있었다. 2011년 공정위는 CJ와 대상이 형사처벌 할인율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했다. 검찰의 손을 거치면서 공정위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된 실태는)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병철기자

metro global

www.metroseoul.co.kr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전 세계 23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metro France

Seine et Marne : deux lionceaux abandonnés devant le Parc des Félins

동물원에 버려진 새끼 사자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동물원 앞에서 새끼 사자 두 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돼 화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른 아침 파리에서 52킬로미터 떨어진 파크 데 펠랑(Parc des Felins) 앞에서 두 마리의 새끼 사자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사자는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플라스틱 우리에 넣어져 있었다. 파크 데 펠랑에서 동물 교육을 맡고 있는 세바스티앙 베르단은 "다른 동물원에서도 일부 봤지만 이렇게 새끼 사자가 버려진 건 처음 본다"고 밝혔다. 이 새끼 사자들은 생후 5개월에서 7개월 가량이다. 이들은 발견된 뒤 동물원 내 보호소로 즉시 옮겨졌으며 오는 주말까지 각종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metro Brazil

Rio tem 500 dias para deixar tudo pronto

쓰레기 때문에 올림픽 못하나

브라질 정부가 올림픽 경기 공사장의 환경문제 해결에 500일이라는 시한 선고를 받았다. 일부 경기장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메트로 브라질은 2016년 브라질 올림픽 개최지 리우의 34곳 중 3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 중 과리바라 만의 쓰레기 문제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주정부는 경기 전까지 80%의 하수를 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환경학자 마리우 모스카텔리는 "축적된 쓰레기 때문에 요트 경기에 쓰일 배가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며 경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 환경부는 한 만으로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세우는 계획 또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Hongkong

今年第6宗
中華白海豚擱淺

잇따른 돌고래 사체 사망 원인은 불규명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돌고래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메트로 홍콩은 25일(현지시간) 홍콩 란타우섬 인근에서 2m가 넘는 길이의 돌고래 사체가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올해에만 벌써 여섯 번째다.

홍콩 오션파크보호협회는 지난 24일 오전(현지시간) 어농자연보호서로부터 사망한 돌고래를 발견했다는 통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부검 결과 돌고래는 '중국 흰 돌고래'로 다 자란 상태였으며 표면엔 어떤 상처도 없었다. 사체는 이미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라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고래 사체는 현지 식품환경위생서로 인계된 상태이며 샘플을 통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밝혔다.

오션파크보호협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80여건의 고래 좌초사건을 처리했다"며 "급속히 진행된 부패 때문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것은 10%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홍콩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돌고래 사체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김서이기자 nidaun17@

친환경 장례 '캡슐라 먼디' 눈길

콩 껍질 모양으로 자연 분해…나무 성장에도 도움

최근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이색 친환경 관 '캡슐라 먼디(Capsula Mundi)'가 주목받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디자이너 안나 치텔리와 라울 브레트첼이 만든 캡슐라 먼디 관은 콩 껍질과 비슷하게 둥근 형태로 만들어져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다. 특수 소재로 제작된 관 내부에는 유기 물질이 포함돼 있고 관 위쪽으로는 고인을 기리는 묘목이나 관목이 붙어있다. 시신을 매장하게 되면 콩 껍질 관은 땅 속 화학작용에 의해 묘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비료 주머니로 변한다.

치텔리는 "콩 껍질 관은 자연 분해를 도와주는 녹말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이뤄져 있다"며 "관 내부의 유기 물질 역시 묘목의 성장을 돕는 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후손들은 이어줄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를 생각하던 중 친환경 관을 떠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캡슐라 먼디 관 활용한 친환경 매장은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불법이다. 이들이 러시아 등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 이유다.

라울 브레트첼은 "우리가 디자인한 캡슐라 먼디 프로젝트는 생명과 재생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손들이 숨쉴 수 있는 울창한 숲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콩 껍질 관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전통적 장례 절차에 위배되거나 문제가 될 점은 전혀 없다"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와 문화 전통에 따라 이 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콩 껍질 관 외에 영국의 디자인 그룹이 만든 '친환경 종이관', 독일의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우주선 모양의 관' 등도 이색적인 관으로 꼽히고 있다고 메트로 모스크바는 전했다. /정리=이국명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年… 38만명 채무 지원

금융硏, 바꿔드림론 존폐 고민해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2년만에 모두 38만명의 채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나온 국민행복기금이 280만명의 연계채권을 매입 이관해 올 2월말까지 3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범당시 목표였던 5년간 32만6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특히 금융위는 지원자 중 선규매입한 22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으로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원으로 총 채무원금 2조5000억원 가운데 52%(1조3000억원)가 감면됐다. 사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운 333명의 채무자는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선 '바꿔드림론'을 실시해 2월말까지 모두 6만1000명의 전환을 도왔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캐피탈사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그간 바꿔드림론 지원금액은 6930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34.3%에서 10.8%로 떨어졌다.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만6000명에 대해선 580억원 규모의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하는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빈곤층 등 기존의 복지 지원 대상을 금융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캠코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민행복기금은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 이자 서민금융 브랜드"라면서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자양분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 지원은 일부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채무자별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연령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그는 "특히 진정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되기 위해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빈곤 고령층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며 "단순히 복지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연체자에 대한 초기상담 등 지원 강화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연체 초기부터 재기에 성공할 때까지 심리상담이나 직업교육, 취업·창업알선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층이나 대학생, 청년, 저소득 빈곤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금융 컨설팅센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앞으로 상환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와 공적채무조정제도나 연금, 복지제도 등과 연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활의지가 높은 분들의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취업전문기관, 기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상승(相乘)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책 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존폐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바꿔드림론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바꿔드림론이 자금의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보증 심사와 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미란기자 a.lve0202@metroseoul.co.kr

'안전 다짐' 롯데건설, 하루 만에 물거품

용인 도로공사 붕괴 부실 시공 여부 조사

경기도 용인의 공사장 붕괴사고로 롯데건설의 안전 다짐이 공염불이 됐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의 100층 돌파 자축 자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안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화리조트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교각 레미콘 슬라브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상판 약 20m 구간이 붕괴, 상판 위에서 근무하던 이모(67)씨 등 인부 9명이 10m 교각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남사~동탄 국지도로 23호선 3공구 남수울천교 교각공사(길이 27m, 폭 15m) 구간이다. 롯데건설이 2012년부터 시공에 들어 맡 완공 예정이었다.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상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세운 가설 부자재 '동바리'가 지목되고 있다.

2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소방관계자들이 헬기 등 장비를 동원해 매몰된 작업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동바리는 형틀을 지지해주기 위해 철재로 만든 일종의 받침대다. 레미콘 타설작업을 할 때는 거푸집에 부은 레미콘이 굳는 동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레미콘을 타설할 때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동바리 부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추정대로 동바리가 사고 원인일 경우 롯데건설은 부실시공을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사고로 이미 안전불감증과 시공능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3년에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은 왜 사고 직후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여 명은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 인근에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사고 원인과 인명 피해 현황 등 파악에 나섰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현장별로 대비도 철저히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안심전환대출, 사흘만에 10조원 소진

"당분간 추가판매 안해"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이르면 내일 중으로 전액 소진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국 16개 은행 본·지점에서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이 2만559건으로 모두 2조1191억원 어치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누적으로는 9만8586건, 10조905억원이 승인된 것으로 연간한도 20조원의 절반을 넘겼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당초 당국은 월간 안심전환대출 전환 한도를 5조원,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했지만 시장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월간 한도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20조원 소진 후 당장 재판매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이번 상품은 전환한 대출을 시장에서 MBS로 전환하는 구조로 시장에서 20조원 상당의 채권을 소화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안심전환대출 전담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추가 판매를 하더라도 20조원 상당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하반기는 돼야 2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 확대 등을 묻는 질문에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증액 역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서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003

[illegible]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현판 제막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돌며 애로사항 해결"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출범

금융현장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현장점검반'이 출범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되며 은행 지주팀(총괄)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직접 면담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규정해주는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시 처리키로 했다.

만약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에 전달,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금융개혁회의 ▲자문단 ▲금융추진단 ▲현장점검단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전담 체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약 40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할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동부화재, 동부캐피탈 인수 초읽기

인수가 100억 안팎… 베트남서 할부금융 활용 자보 시장 장악

지난 1월 동부캐피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부화재가 최근 채권단과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공식적으로 동부캐피탈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동부제철 채권단이 공개 매각한 동부캐피탈지분 50.02%를 인수하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인수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동부캐피탈은 동부그룹의 계열사였지만 최대주주인 동부제철이 KDB산업은행의 관리(자율협약)에 놓이면서 매각 대상에 올랐다. 당초 매각지분은 동부제철 보유 49.98%를 비롯해 백신건설, 에스코, 삼익건설이 각각 10%씩 가지고 있는 30%, 기타주주 보유의 0.04% 등 80.02%였다.

동부화재는 이중 동부제철의 캐피탈 지분과 기타 주주의 0.04%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동부화재가 보유한 캐피탈 지분은 40.02%다. 여기에 자회사인 동부저축은행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70%의 지분을 확보했다.

먼저 동부화재는 베트남 보험시장에서 캐피탈을 활용한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자량구매고객은 60% 이상이 할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또 중산층 확산에 따른 자금 판매량 증가로 할부금융업이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동부캐피탈을 이용해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앞서 동부화재는 지난 1월 말 베트남 현지 손보사인 PTI(Post & Telecommunication Insurance)의 지분 37.32%를 인수, 1대 주주자격을 확보했다.

PTI는 지난 2013년 기준 베트남 시장점유율 7.2%로 29개 손보사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지 우량 보험사다. 현지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영업과 보상 인프라를 갖추고 자동차보험시장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동부화재는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저축은행, 동부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의 대주주로, 캐피탈 인수로 종합금융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금융계열사의 총 자산은 43조7390억원에 달한다.

동부화재는 앞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금융사 지분을 처분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은 매입해왔다. 현재 동부화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은 동부제철 보통주 4.17%가 유일하다.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은 없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만 마무리되면 동부캐피탈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금융계열사를 통한 종합 자주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20조원으로 확대

한은, 금리 0.25%p↓ 중기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다음달부터 20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을 저금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6일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더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8개월 만의 증액으로 앞서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 바 있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000억원 늘렸고, 최근 두 번은 3조원씩 올렸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다.

한은의 이번 한도 증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됐다.

실질적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중견기업을 대상에 포함, 2조원 전용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 시설자금 대출이 16조원 늘어나고 기업 이자비용이 8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는 운전자금 대출이 3조~4조원 늘고 기업 이자비용이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됐다.

이와 함께 한은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1.0%에서 0.75%로 낮아진다. 영세자영업자, 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0.5%로 유지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신용 경계감 때문에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유인을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김문희기자

"직장인 대중교통비 할인 받으세요"

신한카드 'B Big' 판매

신한카드가 한달에 2만원 가량의 대중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놨다.

26일 신한카드는 실용적인 소비성향을 가진 직장인을 겨냥해 대중교통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카드 B Big(빅, 이하 'B Big')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탄생한 'B Big' 카드는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나는 '빅' 소리를 의미한다.

이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용한 후불교통 금액에 대해 전월 신용판매 이용금액이 30/50/100만원 이상이면 월별로 200/400/600원을 정액 할인해 준다.

택시나 KTX 이용금액도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이동통신비, 백화점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대한 캐시백도 주어진다.

카드 디자인에는 비자(VISA) 카드에서 개발한 퀵리드(Quick Read) 방식이 도입됐다.

한편 신한카드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마련됐다.

3월 말까지 'B Big'을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로 발급 받고 교통업종 이용일수가 10일 이상인 고객은 5만원(10명), 3만원(30명), 1만원(50명), 5000원(100명) 캐시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생보재단·YWCA '농어촌 아동 보육서비스' 맞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26일 한국YWCA연합회와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생보재단은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억4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독서교육, 미술치료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비용은 전액 생보재단이 지원한다.

앞으로 생보재단은 충북 제천시(2개 센터), 경기 하남시(1개 센터), 경기 파주시(1개 센터), 강원 동해시(1개 센터)의 아동들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각 지역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아동돌봄서비스와 보육사 교육, 노우관리를 포함한 사업 운영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잘나가는 코스닥, 1조클럽 기업도 '쑥쑥'

코스닥 650선 껑충…시총 올해 31조↑

코스닥 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수도 급증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지난 25일 6년 9개월 만에 65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43% 오른 651.0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65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6월 2일(651.11)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시가총액도 17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24일 620선을 넘어선 뒤 이달 들어 630선(4일)과 640선(20일), 650선(25일)을 차례로 돌파하며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19개에 달한다. 연초와 비교하면 6개나 증가했다. 증권가에선 1조원 클럽 가입은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시총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7조8818억원)을 비롯해 다음카카오(6조7106억원), 동서(2조8016억원), CJ E&M(2조1612억원), 메디톡스(1조9577억원), 파라다이스(1조9553억원), 컴투스(1조9296억원), 이오테크닉스(1조6504억원), 내츄럴엔도텍(1조4346억원), GS홈쇼핑(1조4116억원), SK브로드밴드(1조3925억원), CJ오쇼핑(1조3569억원), 콜마비앤에이치(1조2193억원), 로엔(1조2061억원), 산성앨엔에스(1조1248억원), 바이로메드(1조1060억원), 골프존(1조1018억원), 서울반도체(1조932억원), 에스에프에이(1조90억원) 등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닥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1조 클럽' 가입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말 143조1000억원에서 지난 25일 173조7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 증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 업종의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제약업종 시가총액은 지난해말 14조9450억원에서 이달 24일 22조3733억원으로 7조4283억원 늘었다. 제약 업종 시가총액은 이달 들어서도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IT부품과 반도체 업종은 올 들어 시가총액이 각각 2조5463억원, 2조1095억원 늘었다.

이 외에도 화학(1조3064억원), 소프트웨어(1조570억원), 기계장비(1조426억원), 디지털콘텐츠(9564억원) 등의 업종 시가총액 증가 폭이 컸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쌍용건설 법정관리 졸업

김석준 회장 체제 탄력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김석준(사진) 회장의 글로벌 경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중이던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도 해외에서 꾸준히 공사를 따고 수주에 성공한 데는 김 회장의 해외 인맥의 힘이 크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 윤준)는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약 14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에서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을 많이 하는 대형 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7일 M&A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올 1월 29일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 투자청(ICD)과 M&A 투자유치 계약이 성공한 것도 결정적 요인이다. 쌍용건설은 두바이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유상증자 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번 졸업을 계기로 쌍용건설의 국내외 수주 영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세계적인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등장함으로써 국내외 신인도가 대폭 상승하는 것은 물론 ICD 자체 발주 공사와 2020 두바이 EXPO 관련 물량 수주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도 보증서 문제로 놓쳤던 해외수주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쌍용건설의 특화된 자체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주택시장,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성과가 전망된다.

무엇보다 김석준 회장이 두바이 투자청의 신임을 받아 쌍용건설의 재건과 글로벌 경영을 계속해서 이끈다는 점에서 영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김 회장은 쌍용그룹 창업주 고(故) 김성곤 회장의 차남이다. 두 차례의 워크아웃을 거치는 과정에서 4년간 회사를 떠나 있기도 했지만 지난 83년부터 30년 넘게 쌍용건설을 이끈 인물이다.

김석준 회장은 지난해 초 법정관리가 시작되자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로 건너갔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해 공사 중이던 '도심 지하철 2단계' 마리나 해안고속도로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법정관리는 보통 계약중단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모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공무원들도 김 회장이 직접 방문해 회사 상황과 건설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자 공사를 계속 맡기기로 했다. 당시 쌍용건설이 진행했던 3조원 규모의 해외 건설공사는 한 건의 중단도 없이 진행됐다.

법정관리 기업 최초로 해외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짓는 세인트레지스 호텔과 컨벤션센터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를 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보증서 발급도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이 해줬다. 김 회장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쌓아온 인맥과 같은 신뢰가 저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박선옥기자 psy@

KDB대우증권 개인연금 피트니스 가두 캠페인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이 26일 자두곡 선수 유니폼을 입고 광화문역과 시청역 일대에서 개인연금 피트니스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KDB대우증권 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승 현실화

"분양 4월로…" 건설업계 눈치작전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점 이후로 분양을 늦춘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5만6000여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월 분양물량이 최대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건설사들의 눈치작전으로 분양 물량이 대거 4월로 이월됐다.

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위례신도시의 우남역푸르지오와 북아현뉴타운 지역에서 분양될 두 단지의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이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지며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위례 우남역푸르지오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성남시는 분양가 책정을 놓고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아트리버푸르지오와 함께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성남시와 대우건설간 분양가 이견으로 분양이 연기됐다. 이후 대우건설은 설계 변경에 들어갔으며 마치는 대로 분양가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장지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월까지만 해도 3.3㎡당 1700만원 후반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되면 그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정동의 부동산 관계자도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설계까지 변경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시공사의 의지가 대단하다"며 "설계변경에 위례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감안해 3.3㎡당 1800만원 선에 나올 것으로 부동산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 공급된 아트리버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736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과 몇 개월 사이 100만원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은 빨라야 5월 중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면서 "분양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에서 분양가격도 다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에서 공급될 1-3구역 북아현e편한세상 아파트도 분양가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e편한세상보다 먼저 분양에 나서는 1-2구역 아현역푸르지오는 당초 예상됐던 3.3㎡당 평균 2100만원 선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3월로 분양 계획을 잡았을 때만 해도 1-2구역은 3.3㎡당 평균 2100만원 선에서, 1-3구역은 2200만원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4월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눈치"라며 "특히 1-3구역 북아현e편한세상은 아직 시공사와 조합 간 분양가가 합의도 안된 상태"라고 귀띔했다.

/김희선기자 kimsl@

삼성 갤럭시S6·엣지 출시임박 기대감 확산

계열사·이통사·증권시장 '들썩'… 印·中 시장 성공 관건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만든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갤럭시S6 시리즈의 출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와 계열사는 물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5개월째 얼어붙은 통신시장과 증권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 일단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디자인과 스펙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현재까지 합격점이다. 다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 공략의 성패가 관건이다.

갤럭시S6의 하드웨어는 지금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중 최고 수준이다. 갤럭시S6는 64비트를 지원하는 머리가 8개 달린 최신형 엑시노스 프로세서와 종전 DDR3보다 속도가 80% 빠른 3GB의 DDR4 메모리를 갖췄다. 갤럭시S6 엣지의 경우 삼성전자 최초로 양면 엣지 디스플레이를 내장했다.

특히 갤럭시S6 시리즈의 카메라 성능은 독보적이다. OIS 기능을 제공하는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화이트 밸런스 IR, 고화소에 밝은 렌즈(조리개 값 F1.9) 카메라를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빠르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 NFC 결제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삼성페이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이 NFC 모바일 결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NFC 뿐만 아니라 기존 카드단말기가 인식하는 MST, 바코드 인식 등 모든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

이에 증권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갤럭시S6 시리즈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베스트증권은 26일

25일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S6 월드투어' 행사 레드카펫에서 모델 레이아 키프(Leoya Kof, 사진 왼쪽)와 가수 티무르 로드리게즈(Timur Rodriguez)가 함께 셀피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매출 49조 2000억원, 영업이익이 5조6700억원으로 기대치(5조3600억 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규진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8000만 대의 스마트폰 판매고를 올릴 것"이라며 "갤럭시S6가 본격 양산되기 시작하는 2분기부터는 이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OLED패널 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 IM부문 영업이익은 14년 4분기 1조9000억원에서 15년 1분기 2조2000억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신제품 출시로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8200만대로 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공략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애플과 샤오미에 밀려 3위까지 추락했다. 현지 마케팅 전략에 실패한 결과다. 중국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통신업체가 아닌 가전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 후 통신사에 가입한다. 중국 샤오미는 이같은 판매 방식을 공략해 2위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갤럭시S6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중국 내 온·오프라인 유통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기자 yow@metroseoul.co.kr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 i8' 출시…1억9990만원

BMW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BMW i8'이 한국에 출시됐다.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2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BMW i의 두 번째 모델인 i8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BMW코리아 측은 "BMW i8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신소재 개발을 통한 가벼운 차체,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력구동장치로 지속가능한 미래 이동수단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6일 BMW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BMW i8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공개했다.

/BMW코리아 제공

BMW i8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이 결합된 것으로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모두 가지고 있다. 플러그를 통해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해 주행하다가 전기가 모두 소모되면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BMW i8은 특별히 설계한 드라이브 구조를 적용해 탑승공간인 라이프 모듈과 구동 시스템, 섀시,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드라이브 모듈이 완벽히 분리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라이프 모듈은 신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으로 제작됐다. 드라이브 모듈은 알루미늄이 사용됐다.

차체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은 비틀림 강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중량은 강철보다 50%, 알루미늄보다 30%나 가볍다. BMW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을 활용한 이 모듈들을 통해 공차중량을 1485kg까지 줄였다.

◆첨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i8에는 BMW 이피션트 다이내믹스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첨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BMW 직렬 3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BMW eDrive 기술이 적용된 전기모터의 최적화된 결합이다.

배기량 1.5리터의 직렬 3기통 엔진은 최고출력 231마력과 최대토크 32.7kg.m의 힘을 발휘한다. 6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뒷바퀴로 전달된다. 전기모터는 최고출력 131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낸다. 이 힘은 2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앞 바퀴로 전달된다. BMW i8의 두 구동시스템의 결합은 총 362마력의 힘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속력을 내는데 4.4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BMW i8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총 용량이 7.1kWh이다. 전기모터 구동으로만 최대 37km(유럽기준)의 주행이 가능하다. 최고 12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두 동력원의 공조를 통해 주행 가능한 거리는 최대 600km(유럽기준)다.

배터리 충전시간은 220V 플러그를 사용할 경우 약 2시간반에서 4시간, 월박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2시간이 걸린다.

◆스포츠카의 주행성능과 효율성을 하나로

BMW i8은 스포츠, 컴포트, ECO PRO, eDrive 등 총 4가지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를 통해 이머전시 콜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보행자 보호 사운드 등 다양한 안전편의 장치들이 탑재되었다. 또한 BMW i 리모트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기주행가능거리, 충전상태, 잔여연료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BMW i8은 아이오닉 실버, 프로토닉 블루, 크리스탈 화이트, 그리고 2가지의 하이라이트 컬러 버전을 가진 소피스토 그레이를 포함해 총 5가지 컬러가 있다.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9990만원(VAT 포함)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

이학수법 공청회… 이재용 재산 환수 '최대 논란'

이학수법 처리에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 환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열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학수법) 공청회를 통해서다.

이날 공청회에선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익을 환수하라는 법안 내용에 대해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은 형사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학수법이 통과되면 실형을 받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산도 환수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학수법을 통해 범인 외의 자에게 특정한 범죄수익이 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등을 형사적 형벌 수단인 몰수를 이용해 환수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리에 배치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상훈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상 절차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환수는 범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인이나 제3자나 누구든지 범죄수익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 몰수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치 않고 있다. 이학수법은 민사적 환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형법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진우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은 "법안은 범죄적 요금 배임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환수' 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어 현행법상 형법의 몰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협주기자 shh@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이익을 통한 재벌 세습,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 주최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SK-홍하이 동맹강화… 삼성 적되나

"좋은 품질의 아이폰 싼 가격에 조달… 삼성 위협"

SK그룹과 대만 홍하이그룹의 전략적 동맹이 자체내 아이폰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돼 삼성전자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SK C&C 지분을 홍하이에 매각하며 파트너 관계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SK의 실질적인 지주사 격인 SK C&C가 홍하이와 함께 IT서비스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SK-홍하이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SK-홍하이-애플의 동맹군이 형성돼 삼성전자에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애플과 폭스콘(홍하이정밀)의 연합전선에 SK가 합세하면서 삼성전자 최대 경쟁자인 애플의 자체 아이폰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애플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

SK C&C는 지난 25일 중국에서 홍하이와 IT서비스 합작기업(JV)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합작기업의 설립 방식,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5월 IT서비스 합작기업을 공식 출범할 방침이다.

합작기업은 홍하이의 중국내 공장 중 한 곳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통한 인더스트리4.0 추진을 검토하며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융합 보안 체계 마련을 논의한다. SK C&C는 이를 기반으로 홍하이그룹의 중국내 공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화를 추가로 추진해 중국 제조업 IT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홍하이는 지난해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SK C&C 지분 4.9%를 매입했다. SK C&C를 직접 수 차례 방문한 홍하이 주요 경영진이 SK그룹의 ICT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SK C&C의 지분 매입까지 했던 것이다.

홍하이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제조업체로 애플의 아이폰 생산 위탁업체인 폭스콘의 모기업이다. 업계는 홍하이와 SK의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하이가 SK C&C의 통신·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아 중국과 대만 등지에 있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구축한다면 애플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SK C&C는 IT서비스와 관련해 국내에서 검증된 회사로,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삼성과 LG보다 앞서 있다"며 "중국내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홍하이 입장에서는 SK C&C로부터 IT서비스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SK C&C와의 협력을 계기로 홍하이 중국 공장에 비용 절감과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화가 이뤄질 경우 애플은 좋은 품질의 아이폰을 싼 가격에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삼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기자 hsjh@metroseoul.co.kr

18세기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한화 제공

한화클래식 2015 티켓 오픈

6월 19일부터 3일간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인 '한화클래식 2015' 무대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올해 초청 아티스트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프란즈 브뤼헨이 창단해 이끌어 온 '18세기 오케스트라'다.

첫 내한무대에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선보인다.

공연은 6월 19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과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1일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 티켓은 27일부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가격은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이다.

4월 19일까지 선예매자에 한해 30% 할인이 적용된다.

/채명철기자

한국타이어, 獨 자동차 매거진서 '최고등급'

한국타이어는 자사 제품인 '키너지 에코'가 독일 자동차매거진 '아우토빌트'의 타이어 성능 테스트 결과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아우토빌트는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이어 브랜드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다.

키너지 에코는 핸들링과 제동력, 안락한 승차감, 소음 등 주행 성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타이어의 대표적인 친환경 상품이자 유럽지역 주력 상품인 키너지 에코는 지난달 독일 자동차매거진 '아데아체'의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도 최고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독일에서 올해 연속으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기술의 리더십 경쟁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철기자

에어부산, 2년 연속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에어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2011년 최초 선정 이래 어번이 다섯 번째다.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선정 발표한다.

에어부산은 지속적인 고용확대와 지역고용 창출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선정됐다.

에어부산은 2007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에어부산 제공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힘썼다고 사측은 전했다.

에어부산은 4월 부산-장자제, 부산-다낭, 7월 부산-괌 신규노선 취항을 위해 올해 약 100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채명철기자

정몽구 회장, 기아차 멕시코공장 첫 방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아차 멕시코공장 건설현장을 첫 방문하고 중남미 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 회장은 26일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지역의 기아차 멕시코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사측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현지 임직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중남미 자동차 시장 현황과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을 보고받았다.

정 회장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자신이 챙기는 현지 공장 건설 현황과 신흥 자동차 시장인 중남미 시장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 회장은 "멕시코공장은 글로벌 생존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6일 기아차 멕시코공장을 방문해 공장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또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은 물론, 북미 시장 공세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멕시코는 기아차가 처음 진출하는 곳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지 맞춤형 차량 개발, 참의적인 판매와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글로벌 저성장, 업체간 경쟁 심화, 엔저·원고 등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공장을 멕시코 진입의 전진기지를 넘어 중남미·북미 수출의 허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자 raman@

'쉐보레 말리부' 모델에 배우 이상윤

배우 이상윤이 쉐보레 말리부의 새 모델이 됐다. 한국지엠은 중형 세단 쉐보레 말리부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배우 이상윤을 발탁했다고 26일 전했다.

이광에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전무는 "말리부는 국내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명품을 꿈고 온 쉐보레의 획기적인 제품"이라며 "말리부만이 갖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이번에 새롭게 방영을 시작한 TV 광고 등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쉐보레 말리부 2015년형 모델은 지난 2월 내수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약 50%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소라기자 Inno@

'보조금 살포' SKT, 과징금 235억·영업정지 7일

방통위 "시장상황 고려해 정지 시기 결정"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4월 10일 글로벌 출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를 당했다. 방통위는 다만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변칙플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은 금지된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텔레콤은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대리 유통점 가운데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면서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 시기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 연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happyjh@metroseoul.co.kr

KT의 '문화가 있는 날' KT는 26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West) 올레스퀘어에서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와 클래식 라이브 공연, 스타트업 기업 제품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싱그러운 봄 기운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에서 제주 올레시장 상인에게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다. /KT제공

LGU+·신한銀, 전략적 업무협약

핀테크 시장 공략 본격화

LG유플러스와 신한은행이 본격적인 핀테크(FinTech) 사업 확대에 돌입한다.

LG유플러스는 신한은행과 양사의 인프라를 통한 협업과 결제 시장 내 서비스 활성화,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삼성,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에 열을 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LG유플러스 역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국내 최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 우위와 최고 수준의 금융인프라를 가진 양사가 손을 잡고 국내 핀테크 시장 판도를 공략하고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사이자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PG(Payment Gateway)사업자로 현재 10만여 온라인 가맹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 페이나우(Paynow)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핀테크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입장에서도 급격히 발전하는 핀테크 산업이 금융권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와 MOU체결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2013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핀테크 산업에 투자됐으며, 추세로 보아 투자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에 열을 내고 있는 이 때 두 회사의 MOU가 국내 핀테크 산업 시장을 공략하는 발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양사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및 글로벌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 마케팅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강문석 BS본부장은 "양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사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노하우를 결집시켜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핀테크 사업 진출에 있어 강한 자신감을 비쳤다.

/장혜원기자

SK텔레콤 'B2B 갑질' 근절 나선다

상생협의회 출범

대한민국은 흔히 말하는 '갑질'에 민감한 국가이면서도 갑질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자신의 지위적 우위를 이용해 상대를 짓밟는 비윤리적 갑질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기업과 기업 간에도 비일비재하다. 기업간의 갑질인 일명 'B2B 갑질'은 하청업체에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SK텔레콤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는 'SK텔레콤 3기 상생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SK텔레콤의 '2015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는 SK텔레콤 장동현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37개 협력사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고충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삼생협의회를 시행해온 SK텔레콤은 이번 3기 삼생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반성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 내용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선도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열린 소통문화 정착 ▲지속가능한 성장가치 공유 등 1개의 큰 축과 하위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거래중지를 무기로 단가인하를 요구한다거나 부당한 발주취소·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B2B 갑질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선도'를 위해 4수 4불(4守 4不) 캠페인을 시행한다. 4수는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과 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의 4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4불은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의 4가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26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3기 상생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SK텔레콤의 '2015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 제공

이러한 캠페인은 협력사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환경에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정당한 가격에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한 환경에서 정직한 생산 활동을 통해 협력사는 물론 SK텔레콤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또 SK텔레콤은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금융·교육·인력·채용·복지 등 기존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협력사를 향한 기술 지원과 보호강화, 해외 진출 걱려 등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협력사와 원가절감, 품질개선, R&D 등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노력의 성과를 현금보상, 구매우대, 신규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으로 보상하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칫 이러한 제도는 무리한 실적 요구로 인한 협력사 내부 직원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SK텔레콤은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에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650억원의 동반성장펀드와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사모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금융 지원도 계속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 1천 명을 대상으로 가족 여행과 도서구입, 직원 수강 등을 지원하는 복지포인트 제도와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열린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 유형별 동반성장 캠프와 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교류채널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가치 공유'를 위해 성장사업의 생태계 확장과 창조경제 성공사업 공동 발굴 등을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달성과 2014년에만 정부 포상 7회를 수상하며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날 장동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파트너의 역량을 통해 ICT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라며 "SK텔레콤은 ICT산업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동반성장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원기자 minus@

미장센, '꽃향 샴푸 플로리스트 에디션' 26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꽃의 여신으로 변신한 모델들이 미쟝센 '꽃향 샴푸 플로리스트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다. /미쟝센 제공

오리온, 제과 이어 '영화'도 中 진출

쇼박스, 中 최대 영화사와 독점 계약 3년간 6편 이상 합작

오리온그룹(회장 담철곤)이 중국 영화 시장에 진출했다.

오리온그룹의 미디어 계열사인 쇼박스(㈜미디어플렉스(대표 유정훈)는 중국 최대 영화사인 화이브라더스 미디어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쇼박스 중국법인 설립을 위한 초석으로 향후 3년간 최소 6편의 합작영화가 제작될 예정이다. 영화 콘텐츠는 중국시장에서 효과적 성과를 내기 위해 철저하게 현지화해 기획, 개발된다.

화이브라더스는 시가총액 약 7조원 규모의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화 제작부터 음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역대 중국 매출 순위 10대 작품 중 4편이 화이브라더스 작품으로 성룡 주연의 '포비든 킹덤' 등 총 75편의 영화를 제작해 약 1조원의 흥행수입을 올렸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은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며 "이번 영화사업 중국 진출은 제과에 이어 오리온그룹의 차세대 성장

쇼박스 유정훈 대표(왼쪽)와 화이브라더스 왕중레이 대표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리온그룹 제공

동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57.5%의 쇼박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리온그룹의 주력 사업인 제과는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20여 년간 중국시장을 이해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마케팅, 영업, 인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며 중국시장에서 2012년 1조원 매출을 돌파한 이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기록 삭제"

시민단체 "개인정보 열람권 침해 ·손배소송 책임회피위한 조직적 방해" 주장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피해 고객들이 요구한 보험사에 넘긴 자료 열람을 거부하며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험사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 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9월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알리지 않자 홈플러스 회원 피해자 81명을 모아 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난 23일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제3자 정보제공 현황에 대해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같은 홈플러스 측의 입장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권 침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진행 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해도 괜찮은지 동의(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 단계에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록이 남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고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와 그에 따른 내부 방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스템 기록을 삭제해왔고 3자 제공현황 역시 이와 함께 삭제돼 왔다"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기록을 요구하자 삭제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 삭제해 왔을 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삭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고객정보 불법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도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일,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정보를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홈플러스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illegible]기자

롯데마트, 창립 17주년 기념 '통큰 상품' 내놔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는 창립 17주년(4월 1일)을 맞아 자체상표(PB) '통큰 상품'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큰 냉동 망고(500g)는 베트남산 망고 대비 당도가 2brix 가량 높은(14brix 내외) 태국산을 사용, 기존 1kg에서 500g으로 규격을 줄여 지퍼백 형태로 선보였다. 통큰 허니레드자몽(1kg)과 통큰 허니 라임레몬(1kg)은 각 7000원, 8000원에 판매한다.

플레인 요거트로 원유 함량이 97%인 통큰 요거트 플레인(900g)은 4800원에, 100% 국내산 쌀을 원재료로 사용한 '통큰 우리나라 맛쌀

/롯데마트 제공

(100g*2봉)'은 5950원에 내놓았다. '통큰 홍삼정(240g)'은 120g 2병으로 구성해 창립 한정상품으로 9만원에 판매한다.

남창희 롯데마트 마케팅전략부장은 "창립 17주년을 맞아 품질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둔 통큰 상품을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새롭게 출시한다"며 "이번에 출시하는 통큰 상품은 건강을 중시하며 작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니즈를 세심히 고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닫힌 지갑 열어라" 백화점 봄맞이 세일

롯데百·AK플라자 등 할인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백화점업계가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했다.

롯데백화점은 27일 단하루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잡화·여성패션·남성패션·식품·가전 등 150여개 브랜드 제품을 50~8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 물량은 12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 바캉스 프라이데이의 두 배에 이른다.

주요 상품은 △레노마 스카프 5000원 △엘르 아기타 스카프 1만원 △비비안 스타킹(10족) 1만5000원 △다니엘에스떼 양말(10족) 1만원 △세라 여성화 4만9000원(200족 한정) 등이다.

CK·페레·로베르토까발리·모스키노·토스 등 10개 브랜드의 선글라스도 4만~9만원의 특별가격에 준비했다.

AK플라자는 27일부터 4월2일까지 구로본점·수원점·분당점·평택점·원주점 등 전 점에서 브랜드세일을 진행한다. 남녀 기성복, 영캐주얼, 골프의류, 구두, 핸드백 등 전 상품군을 브랜드별 10~30% 할인 판매하고 점별 일부 이월상품은 9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 기간 AK멤버스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금액대별 10% 상품권을 증정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봄 정기세일에 앞서 27일부터 4월2일까지 대전 타임월드, 천안 센터시티·수원점 등에서 브랜드세일을 연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봄 상품전과 사은행사 등도 개최한다. 야구 시즌을 맞아 충청지역의 타임월드와 센터시티에서는 한화이글스 선전을 기원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이파크백화점은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주요 백화점보다 일주일 앞서 열리는 이번 세일에선 잡화와 의류, 아웃도어, 스포츠, 가구, 악기·취미용품 등 전 품목의 주요 상품을 10~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봄 웨딩페어를 통해 가구, 보석, 잡화, 화장품 등의 상품군에서 다양한 혼족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김보라기자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9-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우수종자 개발로 농수산 경쟁력 강화

CJ제일제당, 전문법인 'CJ브리딩' 설립— 기업·학계·농민 상생 협력체계 구축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재선)이 종자개발을 위한 전문 법인을 출범하고 우수 종자 개발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26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철하 대표이사, 문병석 식품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우수 종자 개발을 위한 전문법인인 CJ브리딩 주식회사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양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영식 교수를 자문위원장으로 교수진 6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도 구성됐다.

CJ브리딩은 쌀, 콩, 녹두, 고추, 배추, 참깨, 김 등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종자를 연구·개발하고, 농가에 개발된 종자를 보급, 계약재배를 통해 이를 상품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품종에 대한 기초연구는 학계와 정부 기관이 수행하고, 시험재배 단계의 연구개발은 CJ브리딩이 담당한다. 확대 재배는 농민이 담당하는 구조로 기업과 학계, 농민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했다.

올해에는 그 첫 단계로 충북 괴산과 강원도 횡성, 제주도에 쌀과 콩 종자를 재배하는 농지와 채종포 네 곳을 운영하고, 계약 재배해 농가로부터 쌀 90t, 콩나물 콩 200t 이상을 수매해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CJ브리딩은 종자 재배 농지를 점차 확대해 7개 이상의 우수 종자를 확보하고, 3년 내에 농가나 농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종자농업법인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우수 종자 확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토종 종자 개발 성과는 미흡해 해외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2011년 172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79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는 "한식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우수 종자의 확보는 농가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라며 "CJ브리딩이 개발하는 우수 종자가 우리나라 농수산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농업 환경에서 우수 종자 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경쟁력있는 토종 종자 개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종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5대 종자업체중 대부분이 미국과 스위스, 일본 국적의 업체일 정도로 해외업체의 비중이 높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해외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2011년 172억원에서 2020년에는 약 79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우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26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종자법인 CJ브리딩 주식회사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CJ제일제당 제공

토니모리 산양유 성분 신제품 론칭 토니모리(대표 배해동)는 26일 반얀트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추럴스 산양유 스킨케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추럴스 산양유 라인은 토너, 히알진 에센스, 보습 크림, 프리미엄 크림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주 성분인 산양유추출물은 뉴질랜드 단일 목장에서 공급받은 원유를 사용한다. /토니모리 제공

네파, 아웃도어 키즈 시장 본격 진출

네파(대표 박창근)가 아웃도어 키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네파는 '네파 키즈'를 공식 론칭하고, '아이답게 자유롭게'를 슬로건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네파 키즈'는 5~12세를 메인 타깃으로 성인 아웃도어 스타일에서 작은 사이즈로 구성한 라인과 트렌디한 캐주얼 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익스클루시브 라인으로 구성됐다.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중심으로 단독 매장을 낼 예정이다. 그동안 아웃도어 업계에서 키즈 라인을 운영해왔지만 단독 매장을 내는 것은 블랙야크 이후 처음이다. 주력제품은 '방울톡톡 바람 방수 재킷', '바람탄탄 보레 재킷', 사방방송 피케셔츠 티셔츠 등 3종이다.

네파는 키즈 브랜드 론칭과 함께 '아이답게 자유롭게'를 콘셉트로 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한다.

/네파 제공

/김수정기자 ksj0215@

교촌치킨, KLPGA 프로골프선수 후원

교촌에프앤비(회장 권원강)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정은, 김규빈, 양제윤 선수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시원한 장타와 정확도 높은 아이언샷이 장기인 이정은 선수에 대해 2013년 이후 3년 연속 후원을 결정했다. 김규빈 선수는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타력을 무기로 이번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또한 양제윤 선수는 작년 W-GTOUR 챔피언십을 통해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교촌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선수로 후원이 결정됐다.

왼쪽부터 교촌에프앤비(주) 이근갑 국내사업부문 대표, 양제윤 선수, 교촌에프앤비(주) 표주호 그룹경영지원본부장, 이정은 선수, 김규빈 선수, 교촌에프앤비(주) 이경혜 마케팅 이사.

KT&G, 복불복 담배 '디스 아프리카 몰라'

KT&G(사장 민영진)는 담배 한 갑에 5가지 캡슐이 들어간 '디스 아프리카 몰라'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담배 필터 속에 맛이 다른 캡슐이 무작위로 들어 있어 캡슐을 터뜨리면 5가지의 독특한 맛으로 바뀌는 점이 특징이다.

KT&G는 지난 1월 '디스 아프리카 몰라'의 스페셜 버전으로 이 제품을 한정 출시했었다. '복불복'이라는 재미 요소를 반영하고 저렴한 디자인이 주효해 출시 두달 간 누적 판매량이 400만갑에 달했다.

디스 아프리카 몰라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5.0㎎, 0.4㎎이며 가격은 4500원이다.

"호텔에서 벚꽃놀이 즐기세요"

호텔 업계 봄맞이 이벤트 다양한 식사·숙박 패키지

윤중로, 남산, 양재천 등 서울 벚꽃 명소에 위치한 호텔들이 벚꽃 시즌을 맞아 다양한 봄 패키지를 내놓았다.

콘래드 서울 호텔은 봄의 정취를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즐기고 싶은 고객을 위해 로맨틱 다이닝 세트와 체리 블로섬 칵테일을 선보였다. 37그릴(37 Grill)의 5개 코스로 구성된 37그릴 체리 블로섬 세트는 팬에 구운 키조개와 훈제요리,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 로즈 티 소르베, 블랑망제(젤리) 등 봄의 정취를 담아낸 요리로 구성됐다. 한강뷰가 아름다운 37바는 벚꽃을 닮은 핑크 빛 체리 블로섬 칵테일 6종을 내놓았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6월30일까지 매주 주말 도심 속 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스프링 블리싱 주말 패키지를 선보인다.

/콘래드서울호텔 제공

이번 패키지는 남산 전망의 그랜드 객실 1박 혜택과 함께 즐거운 남산 피크닉을 위한 더 델리의 2인용 테이크아웃 피크닉 세트를 제공한다. 테이크아웃 피크닉 세트는 4종류의 신선한 샌드위치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5월 30일까지 '올 어바웃 스프링(워커힐의 봄)' 패키지를 선보였다. 블루밍 워커힐 패키지는 숲 속의 별장이라 불리는 더글러스 룸 1박과 빵, 시리얼, 우유 등 간편한 조식을 즐길 수 있는 콘티넨탈 브렉퍼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페스티브 워커힐 패키지는 본관 디럭스룸 1박과 조식 뷔페 또는 인 룸 조식(봄나물 새싹 비빔밥 또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중 택 1)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더 케이호텔서울은 5월까지 봄나들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룸 1박, 조식 뷔페 2인 식사권과 함께 테이크아웃용 샌드위치 2인 세트로 구성되며 샌드위치는 참치 샌드위치와 클럽 샌드위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봄나들이 패키지 이용 시 20% 할인된 가격의 우월로 디너 코스 B 2인(11만2000원), 뷔페 더파크 디너 2인(주중 6만8800원, 주말 8만3200원)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보라기자 bora8853@

'근로자 건강증진' 전세계 머리 맞댄다

6월 서울서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2020 근로자 건강증진 미래 전략 마련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전 세계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자 건강관련 증진방안과 최신동향 등이 논의되는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6일간 열린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산업보건 분야의 최대 국제행사로 3400여 명의 참석이 예상되며 학술주제 발표, 워크숍, 심포지엄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6월2일에는 각 대륙과 국제기구 대표자들이 모여 미래 산업보건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글로벌 정책포럼'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기존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주로 산업보건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적 정보교류 행사였던 데 비해 이번 대회는 산업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정책포럼'을 마련함으로써 전세계 산업보건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한 점 의의가 있다.

6월 2일에 열리는 '글로벌 정책포럼'에서는 5개 대륙별 산업보건 정책담당자와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담당자가 주요 산업보건 추진정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5년 후 산업보건의 발전에 있어서 도전과 동력'이라는 주제 아래 산업보건 발전과 협정지원을 위해 각국의 연구 및 전문기관의 효과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에서는 특별히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와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산업보건 정책실현에 따르는 범국가적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글로벌 정책포럼은 대륙별 대표자와 국제기구 정책입안자들이 서울에 모여 새로운 작업형과 직업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정책과 당면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쾌적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를 위한 미래 전략 수립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press@metroseoul.co.kr

'완전사이다' 영상 유튜브 조회수 100만 돌파

롯데칠성 '사이다데이'(4월2일) 앞두고 다양한 경품행사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사이다데이'를 앞두고 공개한 '완전사이다' 영상이 유튜브 조회 수 100만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0일 유튜브에 공개된 완전사이다 영상은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상황이나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인 '사이다'에서 착안해 만든 영상이다.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에서 칠성사이다를 마시며 답답함을 해소하는 상황을 두가지 에피소드로 유쾌하게 담아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AZ7cGHc-dtU)

영상은 음식 메뉴를 고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쉬사리 하지 못해 는 여자친구 때문에 생기는 답답한 상황을 칠성사이다로 해소하는 에피소드인 '아무거나 여친편'과 사무라를 오해하여 생기는 답답한 상황을 칠성사이다가 시원하게 뚫어주는 에피소드인 '모배기면 가온나편'으로 구성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데이를 앞두고 4월 2일까지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칠성사이다 이벤트 페이지(http://lottechilsungmall.42day.com)에 접속해 '( )해서 답답할 땐 사이다!' 메시지 공란을 채워 응모하면 참여만 해도 매일 200명을 선정해 칠성사이다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공감 가는 내용으로 누적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7명에게는 '해피데이 사이다 6종(갤럭시노트·스니커즈 등·플레이스테이션4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4월 7일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홍원 기자 hana@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 세미나

특수건강진단실 국가건강검진실 개소 1주년 기념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과장 김현주)는 4월 1일 오후 2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특수건강진단실 국가건강검진실 개소 1주년을 기념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서, 공항, 보건 사회복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야간작업 종사자, 연구활동 종사자와 소방관 등 다양한 특수 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하은희 이화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5년 근로자 건강관리의 방향(강일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업건강팀장) ▲근로자 건강과 국가 암검진(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연구위원) ▲특수건강진단의 실제(김현수 이화의대 직업환경의학과장) 등의 강연과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 참가를 원하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 국가건강검진실(02-2650-5314)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4월 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 취약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실·국가건강검진실을 개소한 바 있다.

매일유업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상하목장은 오는 28일 세계자연기금(WWF) 한국사무소 주최로 진행되는 '지구촌 전등끄기(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 행사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다.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시민, 기업, 지역 커뮤니티,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등이 이뤄진다. 에펠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들도 소등에 참여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은 3월 28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서울광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지하는 거리행진과 그린멘토특강, 에너지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2011년부터 5년째 캠페인에 동참하며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블루스카이 앱(안드로이드)을 다운받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할 때 해시태그 #상하목장# Earthhourkorea를 남기면 된다. 멋진 하늘을 공유해 준 50명에게 상하목장 유기농 코코아우유 한 박스를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벤트는 4월 6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 상하목장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anghafa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JAL, 봄맞이 캠페인 아이패드 에어2 증정

JAL 한국지점에서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JAL 봄맞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JAL 일본행 항공권의 예약, 발권을 마치고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1일까지 캠페인에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명을 추첨해 애플 아이패드 에어2를 증정한다. 대상 예약 클래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http://www.kr.jal.com/krl/ko/spring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탑승기간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metrogame

서든어택 대규모 업데이트 '좌춘기' 마지막 티저 공개

신규모드 '넥슨을 털어라' 새 캐릭터 3종 선보여

㈜넥슨(대표 박지원)은 26일 넥슨지티㈜(대표 김정준)가 개발한 대한민국 1등 FPS(1인칭 슈팅게임) 게임 '서든어택'의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좌춘기'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 티저 페이지를 공개했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좌춘기' 파이널 업데이트 티저 페이지에서는 새로운 캐릭터 3종과 신규 무기 '바주카포', 그리고 독특한 게임모드 '넥슨을 털어라' 등 풍성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다.

신규 캐릭터 3종은 각각 '전설의 뽀니 캐릭터', '전설의 싸움짱', 'M.K' 등의 콘트와 함께 실루엣 형태로 공개됐다. 4월 1일 게임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는 해당 캐릭터 3종과 신규 무기 '바주카포'를 전부 지급한다.

함께 예고된 신규 게임모드 '넥슨을 털어라'는 캐릭터가 '넥슨 에잠입해 건물을 탐색하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콘셉트의 독특한 신규 PvE(Player vs. Environment) 협동모드로,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서든어택 슈퍼페스티벌 2015' 현장에서 깜짝 공개돼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서든어택 개발을 총괄하는 넥슨지티 김명현 실장은 "좌춘기 업데이트의 대미에 걸맞은 기발한 게임모드와 새로운 캐릭터들을 준비했다"며 "예고된 캐릭터 3종 외에도 4월의 깜짝 선물 캐릭터 2종까지 총 다섯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서든어택은 지난 12월부터 '좌춘기'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인 새로운 게임모드와 코믹 콘셉트의 연예인 캐릭터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업데이트 전 대비 PC방 점유율이 3배 이상 상승(3월 1일 23.51%, 게임트릭스 기준)하고, 지난 3월에는 역대 최고 동시 접속자수(35만 명)를 기록하는 등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서든어택' 업데이트와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넥슨 서든어택 홈페이지(http://sa.nex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기자

넥슨, '카운터스트라이크' 베트남 서비스

브이티씨 온라인 통해

㈜넥슨(대표 박지원)은 베트남 퍼블리셔 브이티씨 온라인(대표 관싸모남)을 통해 FPS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의 베트남 지역 공개시범(오픈베타) 테스트를 26일부터 실시했다.

브이티씨 온라인은 다양한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베트남 최대 온라인 게임 배급사다. 넥슨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의 대표 콘텐츠인 '좀비 모드'를 비롯해 베트남 유저 성향에 맞춘 현지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넥슨 박지원 대표는 "브이티씨 온라인이 보유한 넓은 유저 풀을 활용해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퍼블리셔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성공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 싸오 남 대표는 "좀비 모드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는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에 대한 베트남 이용자들의 기대가 높다"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은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 대표 Gabe Newell)이 보유한 PC 패키지 카운터스트라이크(Counter-Strike 1.6)를 기반으로 넥슨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FPS 게임으로, 현재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북미, 유럽 등 글로벌 각지에서 서비스 중이다.

/김종훈기자

'마구마구'와 함께 플레이 볼

넷마블, 승부예측 이벤트 … 백화점 상품권·100만 거니 지급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올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기념해 1등 야구 게임 '마구마구'(개발사 넷마블 엔파크)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 공개 서비스에 돌입한 '마구마구'는 누적회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국내 부동의 1위 온라인 야구 게임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2015 프로야구는 국내 최초로 10구단이 참여해 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도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마구마구' 서비스 이후 최초로 최상위 등급인 '블랙카드'가 업데이트 된 기념으로 해당카드를 획득한 선착순 3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클럽 멤버쉽을 지급한다.

이날부터 오는 4월 29일 전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새롭게 구성된 선수 패키지를 지급하고 7일 동안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엘리트 카드 선수 중 1명을 영입할 수 있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한다.

신규 게임을 지속적으로 즐기는 열성 이용자들에게 레전드카드 등 다양한 아이템을 100% 지급하고 최근 30일간 접속한 적이 없는 이용자가 게임에 복귀할 시 100만 거니(게임재화) 등을 지급한다.

승부예측 이벤트인 '야구의 신도 점쳐' 시즌 내 줄곧 진행한다. 전일 프로야구 마지막 경기 시작부터 당일 각 경기 시작 전까지 접속 이력이 있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경기를 모두 맞출 시 100만 거니와 스페셜 박스 1개는 물론 백화점 상품권 등도 추가 획득 가능하다.

김범수 넷마블 사업부장은 "'마구마구'가 올해 역시 대한민국 넘버원 야구 게임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시즌 개막과 함께 준비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즐겁게 게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구마구' 그리고 2015 시즌 오픈 기념 업데이트-이벤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ma9.netmarbl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넷마블 '드래곤스트라이커' 사전 테스트

30일까지 4일간 진행 사전등록 대상 이벤트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26일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드래곤스트라이커'(개발사 심플레이스튜디오)의 사전 테스트 일정을 공개하고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시작했다.

'드래곤스트라이커'는 최강 펫 드래곤과 함께 화려한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코바일 RPG(역할수행게임)로 모험을 자동으로 반복 진행해주는 자동 성장 시스템을 도입해 쉽고 빠르게 캐릭터와 펫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250여 종의 다양한 펫과 드래곤, 전 세계 이용자 간 거점탑을 점령하고 실시간 약탈을 진행하는 점령전, 다양한 펫을 이용해 전략적인 전투를 즐기는 '펫 대전' 등 다양한 재미 요소들도 갖추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드래곤스트라이커'의 사전 테스트는 누구나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 참여자 중 게임 공식카페를 통해 후기를 남긴 이용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추첨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넷마블은 게임 출시 전까지 사전 등록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게임 내 유용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100만원 상당의 스페셜 패키지를 선물한다.

넷마블 박영재 본부장은 "'드래곤스트라이커'는 자동성장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성장의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RPG를 즐길 수 있는데 중점을 맞춘 게임"이라며 "이번 사전 테스트를 통해 '드래곤스트라이커'만의 차별화된 액션의 묘미를 미리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래곤스트라이커' 및 사전 등록 이벤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등록 페이지(http://nes.netmarble.net/event/dstriker/27)와 공식카페(http://cafe.naver.com/dragonstrik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기자

아픔과 상처 지닌 중년으로 돌아오다

욕망 아닌 인간의 아픔 관통해 복잡한 심리 유지 힘 많아 들어

영화 '화장'의 안성기

병으로 꺼져가는 아내를 곁에 두고 있는 중년 남성이 젊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다음달 9일 개봉하는 영화 '화장'(감독 임권택)은 시놉시스를 보고 누군가는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장 스토리로 따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중년 남성을 연기한 배우가 안성기(63)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 세월의 질곡을 담고 있는 그의 감정 연기는 남자의 욕망을 넘어 서러움과 서글픔,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복잡한 내면을 마음 깊이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훈 작가의 소설 '화장'을 좋아했어요. 중년의 이야기라 와 닿은 부분도 있었고, 수려한 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영화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세월을 살아본 임권택 감독님이 연출을 맡아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4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국민배우'의 타이틀을 얻은 안성기에게도 '화장'에서 연기한 오정석 상무 역은 쉽지 않은 배역이었다. 복잡한 심리와 감정을 촬영 내내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촬영이 끝난 시간에도 감정이 지속 연결됐어요. 이 사람의 심리가 단선적이지 않잖아요. 와이프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직장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스로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데다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굉장히 복잡한 심리 상태였죠. 자칫 잘못하면 감정의 끈을 놓칠 수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죠."

안성기는 "'화장'은 남성의 욕망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인간적인 아픔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아내가 죽음의 향기라면 젊은 여직원인 추은주는 사람의 향기예요. 오 상무는 그 중간에 있죠. 오 상무가 아내를 외면한 채 추은주의 향기에 취했다면 다른 형식의 삼각관계 드라마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화 속 오 상무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람의 향기를 맡게 되는 인물이에요. 이 지점이 우리 영화가 일반적인 멜로드라마와 차별화되는 독특하지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임권택 감독과는 이번 작품이 7번째 작업이다. 2002년 '취화선' 이후 12년 만에 다시 만난 임 감독과의 작업 스타일은 한결 같았다. "감독님과 영화를 디지털로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필름 찍듯 영화를 찍으시더라고요. 디지털이니까 여러 번 찍어도 되는데도 필름 찍듯 한 번 오케이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오히려 집중력이 있는 현장이라 더 좋았어요."

오랜만에 공감 가는 작품을 한 만큼 흥행에 대한 기대도 있다. "지난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할 때 관객들이 진심이 담긴 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영화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반응이 좋아 기뻤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봉한 뒤 일반 관객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른 영화에 비해서 더 많이 궁금하네요."

아역 시절까지 포함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영화와 함께 한 안성기는 한국영화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라면 누구나 우러러보는 위치에 서있지만 정작 그는 "아직도 연기에서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이 많다"고 자신의 연기를 냉철하게 평가했다.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해보고 싶은 역할은 많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보면서 순화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누구보다도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면 쉽게 잊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영화를 통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배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디자인/[illegible]

star bag

EBS '스페이스 공감' 출연

그룹 JYJ의 시아준수가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다.

시아준수는 "팬본인터뷰를 통해 소극장 콘서트를 꿈꾼다고 말했는데 꿈이 이뤄진 것 같다. 관객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스페이스 공감'은 양질의 라이브 공연을 엄선해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아준수 출연분은 다음달 중 방송된다.

대만 가수 오극군과 호흡

배우 송지효가 대만 가수 오극군(우커췬)의 신곡 '니요가애(너 귀엽다)'를 함께 불렀다.

지난해 영화 '708090'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쳐 주며 우정을 다졌다. '니요가애'는 오극군이 송지효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가볍게 멜로디를 넣어 불렀던 노래다.

웹드라마서 오피스걸 변신

걸그룹 2NE1의 **산다라박**이 '단종한'과 웹드라마 '닥터이안'에서 4차원 오피스걸 이소담을 연기한다.

이소담은 난감한 일이 생기면 헌팅캡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엉뚱한 매력을 가진 인물이다. 오는 29일 오후 10시30분 네이버TV캐스트와 중국 유쿠 등을 통해 방송된다.

싸이더스HQ로 둥지 옮겨

그룹 2AM 출신 **임슬옹**이 싸이더스HQ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연기 활동을 병행한다.

싸이더스HQ 측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연기자로 활동한 임슬옹이 배우로 활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가수 활동에서도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배우면 힐링되고 수익도 껑충”

기업 정리력

신은선/더로피

최근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 정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정리효창연구소 대표이자 국내 1호 기업정리력 전문가인 공민선(사진)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각자 환경에 맞게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주장하는 기업정리는 인력 구조조정이다 청산, 매산 등이 아닌 기업의 4대 자원인 돈, 사람, 공간, 시간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 죽어가는 기업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몸이 부서지라 일하는데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번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많이 벌더라도 비용을 최소화해야만 매출이 극대화가 된다.

저자 공민선은 기업이 최대한 불필요한 것은 정리해서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 재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긴다. 비우면 더 값진 것이 채워지고 그동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정리 노하우는 자신을 정리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대기업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는 정리라는 개념을 접한 뒤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뒤죽박죽 엉킨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니 시간이 절약됐고, 삶의 여유가 생겼다. 인맥록을 정리하니 주변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해 졌다. 집착을 버리니 '힐링'이 됐다.

"정리하는 버릇이 생기니 삶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서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정리는 바로 행복입니다."

'기업 정리력'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군살을 빼기 위한 정리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눠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회사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돈 정리력, 오래 함께 일할 사람을 만드는 조직 정리력, 일하는 곳을 단순화시켜 능률을 올리는 공간 정리력, 적게 일하고 효과를 높이는 시간 정리력이다. 이들을 통한 관리하는 방법이 기업정리력이다.

/김민준기자 kimmj@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백두대간은 내게 말했다

김하은/홍익미디어

외대산악회 출신인 작가는 산악인 엄홍길씨와 2004년 직말라이 15좌 '알롱캉' 원정을 갈 때 원정대장을 맡았다. 그동안 나온 백두대간 관련 책자들이 산행 코스 위주인데 반해 이 책은 산행코스는 물론 백두대간의 인문과 지리, 역사, 생태까지 쉽게 소개하면서 신림기의 격을 한층 높였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을유문화사

도시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문화 역시 과학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걷고 싶은 거리와 뜨는 거리의 법칙은 무엇인지, 오래된 도시들은 아름다운데 현대 도시들은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도시를 통해 살펴보는 권력, 현대 도시가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시 박항률 그림/비채

정호승 시인이 지난 42년 동안 발표한 작품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 받은 시 101편을 가려 엮었다. 표제작인 '수선화에게'와 '미안하다' '윤주사에서' '꽃 지는 저녁' '선암사' 등 시인의 대표작과 2005년 이후 출간된 시인의 신작 시집 '포옹' '밥값' '여행'에 수록된 신작시 32편이 실렸다.

단-종려의 낙원

히라노 게이치로/문학동네

일본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기 신작 SF 소설 '단-종려의 낙원'을 출간했다. 소설은 2년 반의 화성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우주비행사가 겪는 혼란과 그 배경에 숨은 가상의 사건들을 다룬다. 과학적 근거와 과감한 상상력을 동원해 기발하고도 현실적인 미래상을 제시한 작품이다.

주말에는 아무데나 가야겠다

이원근/별라루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고 싶은 때가 있다. 하지만 유명한 관광지에 머물면 사람에 치이거나 공해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가 많다. 이원근 작가와 작가의 아버지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오지 마을을 소개한다.

임형주, CNN 선정 세계 3대 팝페라 테너

팝페라 테너 임형주(29)가 세계적인 테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임형주는 25일(현지시간) 미국 CNN의 오피니언 뉴스 사이트 CNN 아이리포트(CNN iReport)가 선정한 '세계 3대 팝페라 테너(The 3 Popera Tenors in the World)'에 러셀 왓슨(영국)과 알레산드로 사피나(이탈리아)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소속사 유니버설뮤직이 26일 밝혔다.

USA음악협회 대변인 겸 CNN 아이리포트 객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유명 음악평론가 그레이스 케이코가 직접 선정했다.

케이코는 "임형주는 세계 3대 팝페라 테너 중 가장 최연소로 진정한 천상의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다"며 "그의 목소리는 크리스털처럼 깨끗하고 서정적이며 몽환적이다. 그는 오리지널 3대 테너 중 가장 어린 호세 카레라스를 연상케 한다"고 극찬했다.

한편 임형주는 지난달 한국출신 문화예술인 중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미국 백악관 산하 대통령 소속 문화체육의학위원회가 수여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을 수상해 화제를 보였다.

/김지은 기자 [illegible]

강하늘, 윤동주 시인 된다

이준익 감독 신작 '동주' 촬영 개시

이준익 감독의 신작 '동주'가 강하늘, 박정민 등 주요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에서 크랭크인했다.

'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스물여덟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시인 윤동주의 청년기를 그린 영화다.

드라마 '미생'과 영화 '쎄시봉' '순수의 시대' '스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강하늘은 주인공 윤동주 역을 맡았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시인의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파수꾼' '파파로티' 등으로 인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박정민은 윤동주의 사촌이자 그의 짧은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친구 송몽규 역을 맡았다.

지난 21일 진행된 첫 촬영은 두 주인공의 고향 북간도에서의 10대 시절 장면을 담았다. 첫 촬영을 마친 뒤 이준익 감독은 "윤동주라는 시인을 감히 영화로 찍는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크다. 영화가 윤동주의 역사 속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닐까 염려가 컸는데 첫 신을 찍으면서 다 잊어버렸다. 신선하고 말랑한 두 젊은이의 살아있는 그 순간을 필름에 담는 것, 그것이 '동주'인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하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사랑하는 윤동주라는 시인을 연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동시에 큰 부담"이라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준익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주"는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예민한 청년기를 보내는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청춘의 초상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는 오는 4월 말까지 촬영을 진행한 뒤 올 하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매주 토요일 밤 11시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정글서 불어온 쿡방 열풍

레이먼킴 '정글의 법칙' 요리사 활약

스타 셰프 레이먼킴이 배우 이성재를 '좋은 손님'에 비유했다.

레이먼킴은 SBS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 편에 합류해 '정글의 법칙' 시리즈 최초 요리사로 활약한다.

26일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레이먼킴은 "정글에서 어떤 재료로 요리할 지 알 수 없는 게 힘들었다"며 "구한 재료만 가지고 요리해야 했다"고 어려웠던 점을 말했다.

이어 "이성재는 따끔하게 요리를 지적하는 좋은 손님"이라며 "음식을 많이 해드렸는데 조 갯국이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고 억울해 했다.

김진호PD는 "레이먼킴이 정글에서 만든 요리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보려고 한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SBS '정글의 법칙 인 인도차이나'는 2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김효정기자 [illegible]

하휘동 "'댄싱9' 최적화 댄서 나"

엠넷 '댄싱9 시즌3 올스타전' 레드윙스·블루아이 '진검승부'

엠넷 '댄싱9 시즌2' 레드윙즈의 마스터 하휘동이 다시 댄서로 돌아왔다.

다음달 3일 오후 11시 첫 방송을 앞둔 '댄싱9 시즌3 올스타전'(이하 '댄싱9 올스타전')에선 앞선 두 개의 시즌에서 차례로 우승을 차지했던 레드윙즈와 블루아이의 정예 멤버들이 맞붙어 진정한 승자를 가린다.

정예멤버는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발됐다. 레드윙즈는 시즌1의 하휘동, 이루다, 김흥인, 소문정, 이선태, 남진현과 시즌2의 신규상, 최수진, 손병현, 이유민으로 구성돼 있다. 블루아이는 시즌1 한선천, 김솔희, 홍성식과 시즌2의 김설진, 김기수, 김태현, 이지은, 박인수, 안남근, 윤전일로 이뤄져 있다.

시즌1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MVP까지 차지했던 하휘동은 지난 시즌 레드윙즈 마스터로 변신해 시청자들과 만났다.

시청자들의 부름에 다시 레드윙즈의 댄서로 돌아온 하휘동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CJ E&M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댄서에서 마스터로, 다시 댄서로 '댄싱9'과 함께하게 됐다. 이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며 "사실 나이도 많은데 또 춤을 추게 하느냐며 제작진에게 투덜거렸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원한다면 다시 한 번 이 악물고 춤을 춰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즌 블루아이의 김설진 씨의 춤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직접 대결하게 됐는데 이 또한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각 시즌의 MVP였던 하휘동과 김설진의 대결에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다는 말에 김설진은 "휘동이 형은 '댄싱9' 전부터 지켜봤다. 비보이 스네이크로 워낙 유명한 분이기에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만나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하게 돼 기대가 크고 긴장도 된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illegible]

TV 하이라이트

네 번째 탈락자는?

◆ MBC '나는 가수다 – 시즌3' 오후 10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소찬휘가 폭발하는 록커 본능으로 김범수의 대표 발라드로 무대에 오른다.

그녀의 무대가 끝난 뒤 음악감상실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끝로 박수가 넘쳐났다고 전해져 어떤 무대를 꾸밀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7명의 가수 중 4라운드 탈락자가 가려질 2차 경연에서 네 번째 탈락자는 누가 될지 확인할 수 있다.

◆KBS2 드라마스페셜 2015 오후 10시

시즌1의 세 번째 작품 '머리 심는 날'이 3명의 신인배우를 주연으로 방송된다. 탈모가 콤플렉스인 남자주인공이 뜻밖의 횡재로 겪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 살아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25분

중년 싱글남녀스타들이 출연한 '안티에이징 리얼 버라이어티'가 첫 방송된다. 지와와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김국진-강수지 커플과 색다른 케미를 선보이는 양금석-김도균 커플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

◆ Mnet '칠전팔기 구하라' 오후 11시20분

1월 9일 첫 방송 이후 12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최종화 '선물 같은 너에게' 편이 방송된다. 엠빅트의 열혈 권에 의해 강세종(박시양)이 습격 당하며 맞은 또 다른 위기의 결과와 칠전팔기의 앞날이 공개된다. /정리=이혜리기자 yul[illegibl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일 (금)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5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0 뮤직뱅크	10 생방송 오늘 저녁	20 [illegible]	00 [illegible] 25 [illegible] Peel Pos. 45 Creativity and English
19시	00 KBS 뉴스 7 30 독특한 스페셜 리포트	00 2015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15 빛나거라 지수 [illegible]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72회)	05 [illegible] 20 스쿨랜드 [illegible] 30 [illegible] Family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96회)		55 장구랑 [illegible] (15회)	00 SBS 8 뉴스 55 궁금한 이야기 Y	00 [illegible]
21시	00 KBS 뉴스 9		30 지붕스토리 [illegible]		10 세계의 교육현장 30 문화유산 코리아 40 EBS 스타 강사 [illegible]
22시	00 가루로 교실의 마법 [illegible] 교실 50 [illegible]	00 2015 KBS 드라마 스페셜 <머리 심는 날>	00 나는 가수다	00 정글의 법칙	30 다큐의 고부 열전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생방송 심야토론	10 [illegible] 가족 (8회)	15 나 혼자 산다	25 불타는 청춘	20 세계의 [illegible]
24시		10 유희열의 스케치북	25 MBC 뉴스 24	45 나이트라인	00 EBS 클래식 30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30 뉴스룸 (08회)		00 [illegible] 마스터셰프 [illegible]	00 TV 동물농장 (4[illegible])	◆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우즈베키스탄 19:50 KBS2 ◆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5차전 원주 동부 vs 인천 전자랜드 19:00 MBC스포츠+ SPOTV
19시	55 JTBC 뉴스룸	00 [illegible] (8회)	50 [illegible] 위한 [illegible] 50 오늘 뭐 먹지 (25회)		
20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7회)	00 [illegible] (9회)	00 오늘 뭐 먹지 (27회) 50 올리브쇼 2015 [illegible] (07회)	00 사냥꾼의 세계	
21시	45 마녀들 (9회)	40 꽃보다 할배 (1회)		00 인 데스의 [illegible]	
22시			00 오늘 뭐 먹지 (45회) 30 [illegible] 시즌2 (2회)	00 [illegible] 70억 (12회)	
23시	30 마녀사냥 (65회)	00 칠전팔기 구하라 (12회)		00 [illegible] 자연 [illegible]	
24시	30 JTBC 밤샘토론		00 올리브쇼 2015 (8회)	00 미국 서부의 [illegible] 자연 [illegible]	

전국이 들썩… 프로야구 계절 돌아왔다!

출범 34돌을 맞은 프로야구가 28일 토요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식을 갖고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부터 'KBO 리그'라고 이름 붙은 2015 프로야구는 이날 오후 2시 삼성-SK(대구), 두산-NC(잠실), 넥센-한화(목동), LG-KIA(광주), 롯데-KT(사직)가 정규리그 첫 경기를 시작한다. 신생팀 KT 위즈가 1군리그에 합류하면서 프로야구는 출범 34년 만에 10개구단 규모로 확대됐다.

팀당 경기수도 지난해 128경기에서 144경기, 총 경기수는 576경기에서 720경기로 늘어났다. 경기 수가 증가하면서 각종 기록도 풍성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구단 증대로 인한 경기력 저하를 우려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군 등록선수를 팀당 26명에서 27명으로 한 명 늘렸다. 다만 경기 출전선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5명이다.

1군리그에 처음 합류하는 KT는 28명의 선수를 등록해 26명까지 경기에 뛸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선수도 타팀보다 1명 많은 4명 등록에 3명까지 출장이 가능하다.

내일 개막전 시작 720경기 7개월 대장정
KT 합류 출범 34년만에 10구단 시대

올해부터 포스트시즌 흥행을 위해 와일드카드 제도도 도입된다. 정규리그 4위와 5위는 맞대결을 펼쳐 준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리게 된다. 4위팀 구장에서 최대 2경기를 치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4위 팀이 1승 혹은 1무만 거둬도 상위 시리즈에 오른다. 5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선 무조건 2승을 거둬야 한다.

올스타전은 '드림팀'(삼성·SK·두산·롯데·케이티(kt))과 '나눔팀'(넥센·NC·LG·KIA·한화)으로 나눠 대결한다.

야신 김성근(73) 감독이 한화 이글스의 지휘봉을 잡는 등 올해 새로운 감독으로 시즌을 치르는 팀들의 성적도 관심이다.

한편 올해 KBO리그는 최초로 800만 관중에 도전한다. 프로야구는 2012년 정규리그에 714만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최대자를 기록했다가 2013년 644만명, 2014년 650만명으로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 경기 수가 늘어난 올해는 지난해 경기당 평균관중(1만1302명)만 유지해도 총 814만의 관중이 입장해 최초로 800만 관중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윤석민, KIA 뒷문 책임진다

KIA 타이거즈 사령탑 김기태(46) 감독이 윤석민(29·사진)의 보직을 마무리로 결정했다.

김 감독은 28일 광주구장에서 펼쳐지는 LG 트윈스와의 개막전에 앞서 코칭스태프와 미팅을 통해 윤석민을 선발보다 마무리로 기용하는 게 팀 전력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IA는 일찌감치 양현종-필립 험버-조쉬 스틴슨을 1~3선발로 정했고 임준혁·임기준·임준섭을 선발 후보로 꼽고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시험했다.

김진우와 김병현도 재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둘이 1군에 복귀하면 선발 자원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마무리에 대한 고민은 떨쳐내지 못했다. 가장 유력한 마무리 후보로 점찍었던 심동섭은 좋은 구위를 선보였으나 경험 부족 등의 숙제를 드러냈다.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해 아직 많은 공을 던지지 않은 윤석민이 긴 이닝을 소화하려면 시즌 초 2군에서 추가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도 보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민은 2006년 KIA 마무리로 뛰며 19세이브를 올렸다.

/김민준기자

류현진 "어깨 통증 작년과 비슷"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채 개막을 맞을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부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LB닷컴은 26일(한국시간) "류현진이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MRI(자기공명영상) 검진 결과에 놀라지 않았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통증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18일 시범경기 두 번째 실전 등판을 했고 다음날(19일) 어깨 통증을 느꼈다.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코티손 주사를 맞은 류현진은 23일 캐치볼을 했으나 다시 통증을 느껴 LA로 건너가 다저스 주치의를 만나 정밀검진을 받았다.

다저스는 25일 "류현진은 2주 동안 휴식과 재활훈련을 한 후 다음 피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견갑골(어깨뼈) 통증으로 DL에 올랐다. 그러나 2~3주 뒤 마운드에 돌아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류현진은 "2주 동안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포미닛 목동 AOA 잠실로

144경기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2015시즌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자가 확정됐다. 프로야구 개막전은 28일 잠실, 사직, 광주, 목동, 대구 구장에서 일제히 펼쳐진다.

26일 KBO에 따르면 올해로 마지막 시즌을 맞이하는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개막전에서는 췌년 삼성 어린이회원 출신 팬 박용현씨 가족 3명이 시구, 시타, 시포를 맡았다. 박씨의 아들 성호 군이 시구, 아버지 향기 씨가 시타를 하고 박씨가 원년 어린이 회원 점퍼를 입고 시포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사직 경기에서는 고 최동원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가 시구할 예정이다. 최동원은 한국시리즈 단일시즌 4승이라는 KBO 리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며 롯데 창단 첫 우승에 일조했다.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가 맞붙는 잠실 경기에서는 걸그룹 AOA의 지민(사진 왼쪽)과 미두 멤버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하고,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격돌하는 광주 경기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초등학생 야구팬 엄지용 군이 함께 시구에 나선다.

넥센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목동 경기에서는 걸그룹 '포미닛'의 전지윤(오른쪽)이 시구를 맡는다.

/김민준기자

이대호 '허리 통증' 훈련 열외

'빅보이'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가 허리 통증으로 팀 훈련을 하루 쉬었다.

일본 스포츠닛폰은 26일 "이대호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25일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이대호는 "허리에 무거운 느낌이 있다"며 "이럴 때 부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훈련 열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6일 몸 상태를 봐야 개막전 출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호의 부상은 경미한 수준이다. 일본 언론도 27일 야후오크돔에서 열리는 지바롯데 마린스와 퍼시픽리그 개막전 출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민준기자

의정부 화재 수사 마무리?

유족들 "인정 못한다"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가 화재 발생 두 달 만에 실화범과 소방 공무원 건축주 등 15명을 입건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관련 규정을 이유로 장례비 이외엔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식의 정부측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가 난 오토바이의 운전자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증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 S(57)씨 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61)씨를 포함해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0명이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 당국 등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나 144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합뉴스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시장은 유가족들과 면담 한번 하지 않고 장례비 75만원 지급한 것 이외에는 어무런 대비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 발생한 날도 희생자들이 어느 병원에 안치돼 있는지조차 유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파악해야 했다"며 "아직도 희생자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진화 구조 작업에도 불은 드라이비트와 네트는마을 등의 거주용 건물들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 화재로 나모(22·여)씨 등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168세대가 거주하는 4개 건물이 불에 탔고 주차됐던 차량 59대가 모두 소실됐다.

경찰 수사에서 발화점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김모(53)씨 소유 4륜 오토바이로 밝혀졌다. 김씨가 오토바이에서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를 녹이려 핸들 커버를 열고 터보라이터로 열을 가한 것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전안함 사건 유족 위해 봉사활동하는 장병들 육군35사단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5주년을 맞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열었다. 육군35사단 공병대대 장병들이 고(故) 남기훈 원사의 유족이 운영하는 구둣가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대 취업률 4년제보다 ↑

임금격차도 점차 줄어

"고졸자, 전문대생도 취업이 잘 되는데 4년제를 졸업한 저는 아직까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씁쓸해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승환(28)양.

최근 4년동안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취업률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분석한 '2015년도 학력별 취업여건 현황 분석' 자료(통계청 2015년 기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추세를 타고 있는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하향곡선을 보였다.

학제별 취업률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010년 55.6%, 2011년 60.7%, 2012년 60.8%, 2013년 61.2%, 2014년 61.4%로 해마다 취업률이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4년제 대학은 2010년 51.9%, 2011년 54.5%, 2012년 56.2%, 2013년 55.6%, 2014년 54.8%로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8%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취업난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이 여전히 원활한 편이라고 해석된다.

또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의 월 평균임금 격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으로 봤을 때 2007년 전문대졸은 110%, 대졸은 161%로 51%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2013년도엔 전문대졸 116%, 대졸 156%로 그 격차가 40%포인트까지 감소됐다.

전문대와 4년제의 졸업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감소는 상대적으로 전문대 졸업자들의 임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재수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성격의 교과과정이 정착된 결과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에게 국가적으로 계속교육과 재교육 등의 기반을 부여해 직업능력 계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준희기자 jhj@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 28일 개통 혼잡 심화 우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신논현역부터 종합운동장역 연장구간은 28일 오전 5시 31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2단계 구간 개통으로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38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에도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240%에 육박하는 9호선이 연장되면 혼잡이 더 심해져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시는 열차 확충과 급행버스 도입을 약속했지만 증차까지는 1년 이상이 남은 데다 지하철 수요가 버스로 전환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시는 급행버스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행하고, 노선도 기존 가양~여의도에 더해 염창~여의도 구간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法 "표창 공적 반영 없이 경찰관 해임 위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이전에 표창을 받은 공적을 반영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해임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16년여간 근무하며 경사 계급까지 올랐다. 그러다 박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같은 경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신이 2011년 3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G20 성공개최 유공'을 이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 공적 사항인 원고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승차 거부 택시' 첫 면허 취소

수차례 불법 영업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해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벌점은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송 정지나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 당 2점 등으로 매긴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다시 통보하고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높은 택시 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벌점 수치를 통보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부드러운 소주